

[제주잠녀]회생력을 잃어가는 불임의 바다

발로쓰는 제주잠녀-한림읍 월령리

등록 : 2006년 12월 15일 (금) 17:35:27
최종수정 : 2006년 12월 15일 (금) 17:35:27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역시 '바다'다. 지난 여름 한차례 흉탕물과 오수로 생채기를 입었다고는 하지만 12월 찾은 바다는 여전히 고운 쪽빛으로 이전의 상처는 없었다고 손을 내젓는다.

그동안의 바다도 그랬지만 한림읍 관내에서 처음 찾은 월령 바다는 바다색과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더 고왔다. 천연기념물 429호인 선인장 군락지 등으로 인해 인위적인 개발이 많이 제한됐던 때문도 있지만, 바다가 주는 것에 묵묵히 순응해 살아가는 잠녀와 바다 사람들을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작지만 알찼던...그러나 지금은 불임의 바다

42만㎡ 면적의 월령 바다는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다. 바다 안에 썰물이면 드러나는 두 개의 모래섬이 자리잡고 있어 가얏치나 좁은 바다를 더 비좁게 만들고 있다.

면바다와 가까운 바다로 협동어장과 공동어장을 나누는 다른 어촌계와 달리 월령은 조루코지를 중심으로 세로로 어장을 나눠 한쪽은 공동작업을 하는 바다로 다른 한쪽은 잠녀들이 개인작업을 통해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바다로 나뉘었다고 했다.

몇번이고 발을 멈추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게 할 정도로 고운 바다였지만 실상 이곳 저곳 생채기가 눈을 아프게 한다.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금악~월림~월령을 잇는 인공천으로 흉탕물과 각종 생활폐수 등이 쏟아져 내리며 바다의 안가슴을 거칠게 훑고 지나갔다. 그로 인해 소라와 전복종패는 물론 자비를 들여 투자했던 해상종패까지 다 잃었지만 이곳 잠녀 등에게 주어지는 것은 청소비 명목의 1500만원이 전부였다.

서부하수종말처리장 공사로 인한 간접피해도 호소했다. 야간개수작업 등으로 고기들의 이동 경로가 차단,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이곳 어민들의 주장이지만 이들의 목소리에 누구하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고정자 잠수회장(65)은 "어디서 흘러왔는지 잔디 찌꺼기에 새끼 돼지까지 떠내려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디 제대로된 물건을 찾을 수 있겠냐"고 하소연했다.

이런 상황들은 잠녀들에게 해서는 안될 선택을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상품성이 없는 소라들을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자꾸 어린 소라를 잡아들이면서 어촌계와도 적지않은 마찰을 빚고 있었다.

이성학 어촌계장은 “당장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될 일인데 종종 소매상 등을 통해 어린 소라가 거래된다”며 “바다가 황폐화되면서 인근 판포나 금능 바다 등으로 소라 등이 이동해버리고, 그래서 수입이 줄어든다는 잠녀들의 주장도 있지만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역시나 불임의 바다가 문제다.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보상비로 받은 2억원을 투자해 투석이나 인공어초 사업을 해보고자 한다는 어촌계장의 목소리에 그다지 힘이 실리지 않는다. 월령에서는 아직 양식장 작업조차 해보지 못했다. 종패사업도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고, 모래섬 위치가 어중간해 해수욕장 등 관광연계사업을 하기에 2%가 부족하다.

비양도 공동 어장도 사용하고 있지만 다른 어촌계들에 비해 접근시간이 길고 수입이 줄어들면서 이제는 ‘비양도 작업’을 하는 잠녀의 수도 크게 줄었다.

이 어촌계장은 “바다를 먼저 살리지 않으면 안된다”며 “바다에서 재미를 보지 못하면 바다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나”고 되물었다.

△마을과 어촌계, 미묘한 마찰

월령에서의 툷 작업은 마을 공동 작업이 아닌 ‘어촌계’사업으로 진행된다. 많은 어촌계들이 툷 작업을 개발한 것과 조금 다른 형태다.

이 어촌계장은 “올해 툷이 좋다고는 했지만 한사람당 일당이 8000원 정도 밖에 안됐다”며 “툷 공동작업 문제는 수년동안 풀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큰 잡음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선인장 군락’으로 인해 마을과 불협화음이 생겼다.

문화재청에서 선인장 군락을 중심으로 한 해안도로에 목조태크를 시설, 사람만 다니도록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다. 마을 입장에서야 선인장 군락을 보호하고 관광객 유인효과도 있을 것이란 기대로 큰 반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촌계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툷을 운반하는 길인 만큼 차량 운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 어촌계장은 “우회도로를 내도 가능한 일을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안 된다”며 “공연히 마을과 어촌계 사이에 싸움만 붙이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월령 잠수들이 바다 보다 자주 가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선인장 밭이다. 군락지인 만큼 웬만한 집 마당이나 담에는 선인장이 심어져 있다. 선인장 작업도 쉬운 일은 아니다.

올해는 선인장이 잘 여물지 않아 20kg 컨테이너에 2만원을 받는다고 했다. 지난해 1만2000~1만3000원 대였던 것에 비하면 조금 나은 편이지만 한창 때에 비해서는 많이 기운다. 선인장은 열매에도 잔가시가 많아 보통 장갑만 세 켤레 이상 꺼야할 정도로 ‘중무장’을 해야 한다. 그나마 진액 판매로 돈벌이가 되는 여름쯤은 새벽 5시에서 오전8시까지 밖에 일을 할 수가 없다. 선인장 재배가 줄어들면서 계통 출하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대부분 개인판매에 의존하고 있지만 바다보다는 벌이가 좋다고 했다.

바다는 그 모습을 바꾸지 않았는데 어째 사람들만 자꾸 변하는 것 같다. 바다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바다에 대한 희망을 조금씩 버리고 있는 것이 지금 잠녀들의 모습이다. 한껏 흥을 올려 '이여씨나~'소리를 내지르는 모습이 자꾸만 흐릿해지는 것이 가슴 아프다.

'발로 달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한림읍 금동리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